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이수진**·김주현***

초 록

본연구의 목적은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여성 청년들의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8차(2007-2020)이다. 일본 데이터는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청년패널조사JLPS-Y, 1-10차(2007-2016) 및 장년패널조사 JLPS-M, 1-10차(2007-2016)이다. 분석 대상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은 7,893명, 일본은 3,429명이 선정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결혼 상태 변화를 종속변수로, 젠더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결혼 이행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상 사이에서 결혼으로 이행하기 이전에 가치관의 타협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할수록, 결혼하면 자녀를 빨리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의 효과와 모성이데올로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 젠더 의식, 결혼 이행, 여성 청년, 한국, 일본

* 본 논문은 2021년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제1저자: 히로사키대학(일본) 교육학부 준교수(leesujin@hirosaki-u.ac.jp)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haha0929@cnu.ac.kr)

I. 서론

청년층의 가족 및 개인 가치관은 자발적인 변화 혹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비자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가족 형성의 지연과 저출산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인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여성 청년의 결혼 행동을 살펴보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한국의 경우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비전통적 결혼관과 비전통적 남성성 의식이 증가하였으며(오영은·추주희, 2020), 20대 미혼 청년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유계숙·정선영, 2018). 한국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결혼 상대의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림(2019)의 연구에서 20~44세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모두 성격, 건강,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이해·협조가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여성은 경제력, 학력, 직업이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응답 비율이 남성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 여성의 응답에서 가사·육아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이해·협조를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결혼 상대의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점도 결혼관의 변화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은 진보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혼재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 청년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10여 년 전부터 청년 세대의 특징 중의 하나로 결혼관 및 성별 역할 분업 의식 등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白河, 2014; 山田, 2015; 山田, 2019). 일본 청년 세대의 보수화가 논의된 근거로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내각부의 '남녀공동참회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에 관한 조사'보고서(2012, 2016, 2019)에서 '남성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및 2016년에는 20대와 30대에서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40대 및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内閣府, 2012, 2016, 2019). 일본 청년 세대의 보수화 논의는 전업주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 세대의 존재에 주목하기도 한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15~39세의 미혼 여성의 34.2% 즉 미혼 여성 3명 중 1명이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13). 소니생명의

조사(2019)에 따르면, 직업을 가진 여성 619명을 대상으로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직업을 가진 여성의 36.7%가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에서 53.2%로 나타나, 전체 여성의 응답보다 16.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ソニー生命保険株式会社, 2019). 山田(2015)는 20대 여성 청년들의 성별 분업 의식이 보수화 한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들 간의 이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는 그룹과,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남성에게 맡기고 소소한 개인생활을 즐김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룹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성별 역할 분업을 지지하고,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황 등의 경제정세의 영향을 남성보다 여성이 크게 받는다는 해석과 장노동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일과 가사 및 육아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보다 성별 분업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존재한다(的場, 2013).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의 변화는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가족 및 젠더 인식은 결혼 이행에 차별적인 영향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혼 이행의 결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이삼식, 2006; 유홍준·현성민, 2010; 장경섭, 2011; 山田, 2019)에서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청년층의 가족 형성 지연이나 비혼화 현상은 구조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위험 관리(장경섭, 2011)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포기’로 답론화되기도 한다. 또한, 결혼 후 실제로 예상되는 생활 수준과 결혼 후 기대되는 생활 수준의 격차를 가족 형성 지연이나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데, 결혼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서 결혼 행동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山田, 2019).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여성의 취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취업률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内閣府, 2021). 경제적 여건의 불안정성이 결혼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결혼으로의 이행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비혼화 및 만혼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이 남성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결혼 이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 후, 결혼관 및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이 결혼으로 이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의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 젠더 의식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젠더 의식으로 상정하는 범위는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의식이며, 이러한 의식과 결혼 행동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행동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다는 현재의 논의를 고려하여 여성 청년의 젠더 의식의 실태 및 변화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과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한국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젠더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

결혼 행동에서 가치관 변화에 주목한 논의들이 있다. 가족이나 결혼, 성역할 태도 등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정, 2018; 변수정, 2018; 이삼식, 2006; 최효미, 2017). 인식 및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의 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삼식, 2006; 이순미, 2016; 진미정·정혜은, 2010)와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한다고 보는 견해(호정화, 2014)가 있다.

여성이 가진 결혼 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이삼식, 2016; 정희경·신형진, 2020; 호정화, 2014; 콜무시, 2019; 藤原, 2016).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또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연구, 藤原(2016)의 연구, 콜무시(2019)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와 동일한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이 연구들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은 혼인 직전의 결혼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혼 이행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비혼 유지 집단과 초혼 이행 집단의 가치관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혼 이행 집단은 혼인 직전의 가치관이 처음보다 전통적으로 변화한 반면, 비혼 유지 집단은 보다 비전통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 가치관이 비전통적일수록 비혼 유지 확률 즉 결혼 이행 확률이 낮음을 밝혀냈다(정희경·신형진, 2020).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분석 자료의 특징은 결혼 가치관을 조사자료에 포함된 8개의 문항을 합성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결혼 가치관은 결혼 이행의 직전년도에 가치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藤原(2016)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동의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에 방해가 된다’에 동의할수록 결혼 이행 확률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성에서만 유의한 결과임을 제시하였다(藤原, 2016). 藤原(2016)의 분석 자료의 특징으로는 제1차년도(2007년)에 결혼 상대가 없고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8년간에 걸친 결혼 타이밍에 제1차년도(2007년)의 결혼, 가족 및 젠더 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양육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콜무시(2019)는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에 찬성할수록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콜무시(2019)의 연구는 분석 자료로 제1차년도, 제3차년도, 제5차년도, 제7차년도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성역할 태도를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한 의식(이삼식, 2016; 阿部·北村, 1999; 콜무시, 2019; 彭·佐藤佐·武藤, 1999; 藤原, 2016), 자녀 양육에 관한 의식(彭·佐藤佐·武藤,

1999; コルムシ, 2019; 藤原, 2016) 등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연구를 보면, 이삼식(2016)은 성별 역할 분업에 부정적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였다. 서구의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평등주의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결혼 및 양육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Cunningham et al., 2005). 반면, Pessin(2018)의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12년 사이, 젠더 규범의 변화가 어떻게 여성의 결혼 역동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젠더 규범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여성의 학력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의 학력이면서 평등주의적 젠더 규범을 가질 경우 결혼으로의 이행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연구를 보면, 阿部와 北村(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도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에 동의할수록 즉 평등주의적 성역할을 추구할수록 초혼 연령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彭潤希 등(1999)은 30대 전반의 미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결혼 후 가사를 본인이 전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彭潤希 등(1999)에 따르면 미혼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결혼 이행에 있어서 장애 조건으로 꼽고 있었다. 반면, コルムシ(2019)는 ‘남성은 밖에서 수입을 얻는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동의할수록 남성의 결혼 확률이 높고,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에 찬성할수록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성역할 규범의 변화가 결혼 인식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결혼 이행에 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Bellani, Esping-Andersen and Nedoluzhko., 2017; Esping-Anderson & Billari, 2015; Goldscheide,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 채민진, 2019). 국가 간 차이, 교육, 출산률 등 여러 변인과 성역할 태도와 결혼 이행 및 인식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Barber & Axinn, 1998; Kolpashnikova, Zhou, and Kan, 2020)

성별 역할 분업 의식과 결혼 이행과의 관계는 성별로 볼 때, 국가별로 볼 때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의 측정 방법과의 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결혼 의향과 결혼 이행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진미정·정혜은, 2010; コルムシ, 2019; 小林, 2006; 橋本, 2009)이라는 점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이런 점에서 결혼 이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결혼 의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결혼을 할 것인지의 여부, 즉 결혼에 대한 생각 혹은 의지를 결혼 의향으로 정의하고(김은정, 2018), 젠더 및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의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삼식, 2006; 임훈민·김중백, 2013; 진미정·정혜은, 2010; 채민진, 2019). 즉, 결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관련한 사회 문화적 변인이 결혼 의향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낮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젠더 의식 또한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특성,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가족 가치관과 성역할 태도가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에서 양성 평등적 가족 내 성별 분담에 동의도가 높은 경우 결혼 의향이 높았다(김정석, 2006; 최효미, 2017; 中谷, 2018; 橋本, 2009). 또한, 비혼 유지와 혼인 이행에 결혼 가치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정희경·신형진, 2020), 결혼 가치관 중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 주체적 태도를 가진 경우, 전통적 결혼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경우에는 결혼 의향은 있으나 결혼으로 이행이 늦어지는 자발적 결혼 연기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이 있다(최효미, 2017; 中谷, 2018).

3.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

교육 수준, 고용 지위, 소득 등의 요인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 방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수준, 고용 지원, 소득 등의 자원이 풍부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김주현·이수진, 2019;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유흥준·현성민, 2010; 탁현우, 2020; Espenshade, 1985; Goldscheider & Waite, 1986)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이 풍부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오지

해, 2020; 何芳, 2018; 福田, 2007)가 있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 사용된 연령, 학력, 취업여부, 주택 형태와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이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성의 연령이 증가하면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오지혜, 2020; 阿部·北村, 1999; 小林, 2006; 小林·能智, 2016). 학력이 여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 결과가 얻어졌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우해봉, 2009; 유홍준·현성민, 2010; 阿部·北村, 1999; コルムシ, 2019; 加藤, 2004; 津谷, 2009; 酒井·樋口, 2005; 佐々木尚之, 2012; 永瀬, 2002; 水落, 2006; 福田, 2007). 우해봉(2009)은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 중 결혼을 하지 않는 비중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특히, 197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고학력 여성들이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小林(2006)의 연구에서 학력은 여성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남성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두 방향의 결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는 대조를 이룬다. 고학력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높다는 결과(코르무시, 2019)와 고학력 남성의 결혼 이행 확률이 낮다는 결과(加藤, 2004; 佐々木, 2012)가 있다. 취업 및 소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何芳, 2018; 三好, 2013; 橋本, 2009; 福田, 2007). 소득의 효과를 보면, 여성의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등 여성의 결혼 이행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三好, 2013)와 여성 본인의 소득이 높으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지혜, 2020)가 공존하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결혼 의욕이 증가하고(永瀬, 2018),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에 동의할수록 평균 연간 소득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橋本, 2009). 코호트로 구분할 때 젊은 코호트에 속하면서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 확률이 높음을 밝혀낸 연구도 있다(何芳, 2018; 福田, 2007). 여성의 소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福田(2007)의 연구에서 여성의 연간 소득이 초혼 이행 확률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연간 소득이 410만엔까지는 결혼 이행 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그 이상의 연간 소득일 경우에는 결혼 이행 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남성의 소득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을 보인다.

즉 남성은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오지혜, 2020; Burgess, Propper and Aassve, 2003; 三好, 2013). 또한, 본인 소득뿐 만 아니라 세대 소득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三好, 2013). 주거 형태의 하나로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동거는 결혼 이행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何芳, 2018; 佐々木, 2012).

Ⅲ.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1-8차(2007-2020)이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 1차년도 조사, 2008년 2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 2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2007년 1차 조사에서 전국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였고, 이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일본 데이터는 동경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청년패널조사 JLPS-Y, 1-10차(2007-2016) 및 장년패널조사 JLPS-M, 1-10차(2007-2016)이다. JLPS-Y 데이터는 2006년말 현재 24세부터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JLPS-M 데이터는 2006년 12월말 현재 35세부터 40세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10차 조사(2016년 조사)까지 사용하므로 24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이 포함되게 된다

한일 양국의 패널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결혼에 대한 의식,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에 관한 성별 역할 의식 등을 포함한 젠더 의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조사 대상을 수년간에 걸쳐 추적조사 함으로써 결혼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의 초점은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 행위에 있으므로 미혼에서 초혼을 경험한 대상자를 추출하고자 연령을 18세이상 49세로 한정하였다. 한국 데이터는 1차부터 8차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7,893명이 분석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미혼을 지속한 사람은 7,612

명(96.4%),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281명(3.6%)였다. 일본 데이터는 1차부터 10차 조사를 통합하여 사용하였고, 총 3,429명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미혼을 지속한 사람은 3,210명(93.6%),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219명(6.4%)였다. 데이터 통합은 총 3단계를 거쳤다. 1단계에서 t년도에 결혼 상태가 미혼이었던 표본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 t+1년도에 결혼 상태가 미혼이거나 기혼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의 표본을 개인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t년도의 상태를 나타낸다. 즉, t+1년도에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들의 젠더 의식은 미혼일 당시인 t년도의 젠더 의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를 일곱차례 반복하여 7개의 데이터 셋을 생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였다. 일본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에서 1-2차, 3-4차, 5-6차, 7-8차, 9-10차를 묶어서 5개의 데이터 셋을 만든 후, 최종적으로 이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젠더 의식에 관한 문항이 격년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1차, 3차, 5차, 7차, 9차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문제와 분석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결혼 변화 상태에 따라서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1-2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에 한일 양국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이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의식에 한일 양국간 차이가 있는가.

2) 분석방법

먼저, 각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을 결혼 상태 변화별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교차표 분석과 t-test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결혼 상태 변화를 종속 변수로, 젠더 의식을 독립 변수로 하는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방법으로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모델은 보완적 로그-로그 모델(Complementary log-log-model)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의 계수 해석은 독립변수 1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해저드비가 $\exp(b)$ 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로 해석하게 된다.

3. 분석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결혼 상태 변화이다. 미혼을 지속하는 경우는 0값을,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 상태가 변화하는 경우는 1값을 취한다. 독립변수로는 젠더 의식을 설정하였다. 젠더 의식은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가치관은 결혼 의향, 결혼에 관한 의식(결혼가치관①), 결혼 생활 중단에 대한 의식(결혼가치관②)으로 측정하였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엄마의 취업이 취학 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식(모성이데올로기①), 결혼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의식(모성이데올로기②)으로 측정하였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한 의식(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으로 측정하였다. 젠더 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결혼가치관①, 모성 이데올로기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역코딩하였다. 추가적으로 한국데이터에서 모성 이데올로기②에 관해서도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과 일본의 젠더 의식에 관한 질문은 내용상으로는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질문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측정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데이터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조사된 반면, 일본 데이터에서는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본 데이터대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원래 문항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주의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연령, 학력, 취업 유무, 주거 형태를 설정하였다. 연령은 20

대, 30대, 40대로 구분하였고, 취업 유무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주거 형태는 자가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한국과 일본의 구분이 조금 다른데, 한국은 고졸 미만과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일본은 고졸 미만, 전문학교 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일본 문부성이 발간한 학교 기본 통계(2019)에 따르면 2019년도에 여성의 전수학교 혹은 전문학교 진학률은 27.1%인 것이었는데, 단기대학 진학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학제 중 단기대학은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수학교 및 전문학교는 직업교육학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과는 구분하여 학력 구분을 하였다.

〈표 1〉 변수 측정 방법

변수		측정 방법	
		한국	일본
종속 변수	결혼 상태 변화	미혼 지속(t년도 미혼, t+1년도 미혼)=0 결혼으로 이행(t년도 미혼, t+1년도 기혼)=1	
독립 변수	결혼 의향	'결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결혼 의향이 있다=1, 결혼 의향이 없다=0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의향이 있다=1(① 꼭 결혼하고 싶다, ② 가능하면 결혼하고 싶다), 결혼 의향이 없다=0 (③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결혼하고 싶지 않다,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결혼 가치관 ①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결혼 가치관 ②	'남편이 외도를 하면 이혼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모성 이데올로기 ①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는 힘든 경험을 하기 쉽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모성 이데올로기 ②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자녀가 있으면 부부의 자유로운 생활이 방해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역코딩.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역코딩.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②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매우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여성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매우 그렇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변수	측정 방법	
	한국	일본
연령	연령에 대한 본인 응답을 변수로 이용	
학력	고졸 미만 = 0 대졸 이상 = 1	고졸 미만 = 0, 전문학교 졸 = 1, 대졸 이상 = 1
취업 유무	미취업 = 0, 취업 = 1	
주거 형태	기타 = 0, 자가 = 1	

IV.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한국의 경우,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75.5%, 30대가 18.5%, 40대가 6.0%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6.4세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3.0%로 고졸 이하의 47.0%보다 약간 많았다. 취업 유무는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53.3%, 미취업자가 4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69.1%, 기타가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으로 이행한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미혼 지속 집단은 연령 분포에서 20대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행 집단은 20대가 55.5%, 30대가 41.3%로 20대가 조금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각 집단별 평균 연령을 보면 미혼 지속 집단은 26.3세, 결혼 이행 집단은 29.6세로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 지속 집단의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각각 48.1%, 52.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 이행 집단은 대졸 이상이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는 미혼 지속 집단에서는 취업자가 52.3%, 미취업자가 47.7%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 이행 집단에서는 취업자의 비율이 79.7%로 미취업자 비율 20.3%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미혼 지속 집단은 약 70%가 자가, 결혼 이행 집단은 약 60%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연령은 20대가 49.3%, 30대가 37.8%, 40대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학력이 24.1%, 전문학교 졸업 학력이 19.7%, 대졸 이상 학력이 56.1%였다. 취업 유무는 취업자가 91%, 미취업자 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70.5%, 기타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보면, 미혼 지속 집단, 결혼 이행 집단 모두 20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비율이 높았으나, 미혼 지속 집단의 40대 비율은 13.7%로 결혼 이행 집단의 40대 비율이 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 연령은 30.9세, 결혼 이행 집단은 29.6세로 미혼 지속 집단이 평균 연령이 높았다. 학력은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학교 졸업이 각각 19.6%, 21.1%로 나타났다. 취업 유무는 미혼 지속 집단의 미취업자 비율이 9.3%로 결혼 이행 집단의 미취업자 비율의 5.5%보다 높았다. 주거 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기타 비율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 연령이 결혼 이행 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취업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적으로도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지속 집단 및 결혼 이행 집단 모두 한국보다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이행 집단에서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한국		전체 (N=7,893)	미혼 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x ² /t-value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5,956(75.5)	5800(76.2)	156(55.5)	101.017 ***
	30대	1,460(18.5)	1,344(17.7)	116(41.3)	
	40대	477(6.0)	468(6.2)	9(3.2)	
	평균	26.4	26.3	29.6	-8.181 ***
학력	고졸 이하	3,707(47.0)	3,656(48.1)	51(18.2)	97.255 ***
	대졸 이상	4,183(53.0)	3,953(52.0)	230(81.9)	
취업 유무	미취업	3,686(46.7)	3,629(47.7)	57(20.3)	81.678 ***
	취업	4,207(53.3)	3,983(52.3)	224(79.7)	
주거 형태	자가	5,450(69.1)	5,284(69.5)	166(59.1)	13.667 ***
	기타	2,439(30.9)	2,324(30.6)	115(40.9)	

일본		전체 (N=3,429)	미혼지속 (N=3,210)	결혼이행 (N=219)	χ^2/t -vau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대	1,691(49.3)	1,567(48.8)	124(56.6)	27.718 ***
	30대	1,296(37.8)	1,204(37.5)	92(42.0)	
	40대	442(12.9)	439(13.7)	3(1.4)	
	평균	30.8	30.9	29.6	2.76 **
학력	고졸 이하	827(24.1)	773(24.1)	54(24.8)	0.441
	전문 학교 졸	673(19.7)	627(19.6)	46(21.1)	
	대졸 이상	1,920(56.1)	1,802(56.3)	118(54.1)	
취업 유무	미취업	309(9.0)	297(9.3)	12(5.5)	3.559 †
	취업	3,120(91.0)	2,913(90.8)	207(94.5)	
주거 형태	자가	2,389(70.5)	2,250(70.9)	139(63.8)	.042 *
	기타	1,001(29.5)	922(29.1)	79(36.2)	

† <.10 *p<.05 **p<.01 ***p<.001

2.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

다음은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젠더 의식의 차이에 있어서,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①, 모성 이데올로기①, 모성 이데올로기②,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혼일 당시의 결혼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가치관①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약 60%를 차지하였고,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이행 집단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14.2%로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평균값을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2.6점으로 미혼 지속 집단의 2.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결혼 가치관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모성 이데올로기①은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

혼 이행 집단이 53%, 미혼 지속 집단이 48.3%로 결혼 이행 집단에서 모성 이데올로기①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모성 이데올로기②를 보면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51.8%로 미혼 지속 집단의 39.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12.5%로 미혼 지속 집단의 5.0%보다 높았다. 평균값으로 볼 때도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이행 집단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전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의 응답 분포에서는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을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약간 높았다. 결혼 이행 집단이 성별 역할 분업에 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 관계가 평등해 진다’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과 마찬가지로 응답 분포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일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결혼 이행 집단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한국

변수		미혼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 /t-value
결혼 의향	없다	3,557(46.8)	52(18.6)	86.419 ***
	있다	4,051(53.2)	228(81.4)	
결혼 가치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38(12.3)	30(10.7)	34.477 ***
	별로 그렇지 않다	3,650(48.0)	105(37.4)	
	조금 그렇다	2,542(33.4)	106(37.7)	
	매우 그렇다	479(6.3)	40(14.2)	
	평균	2.4	2.6	-4.638 ***
결혼 가치관 ②	전혀 그렇지 않다	419(5.5)	15(5.4)	0.796
	별로 그렇지 않다	2,029(26.7)	81(28.9)	
	조금 그렇다	3,644(47.9)	128(45.7)	
	매우 그렇다	1,515(19.9)	56(20.0)	
	평균	2.8	2.8	0.380
모성 이데올로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98(6.5)	21(7.5)	6.962 †

변수		미혼지속 (N=7,612)	결혼이행 (N=281)	χ^2 /t-value
	별로 그렇지 않다	3,435(45.1)	111(39.5)	
	조금 그렇다	3,300(43.4)	127(45.2)	
	매우 그렇다	376(4.9)	22(7.8)	
	평균	2.5	2.5	
모성 이데올로기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53(9.9)	22(7.8)	38.497 ***
	별로 그렇지 않다	3,863(50.8)	112(39.9)	
	조금 그렇다	2,612(34.3)	112(39.9)	
	매우 그렇다	381(5.0)	35(12.5)	
	평균	2.3	2.6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265(16.6)	38(13.5)	5.88
	별로 그렇지 않다	4,048(53.2)	141(50.2)	
	조금 그렇다	1,987(26.1)	86(30.6)	
	매우 그렇다	309(4.1)	16(5.7)	
	평균	2.2	2.3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75(10.2)	40(14.2)	5.694
	별로 그렇지 않다	3,490(45.6)	130(46.3)	
	조금 그렇다	2,966(39.0)	98(34.9)	
	매우 그렇다	398(5.2)	13(4.6)	
	평균	2.6	2.7	

† <.10 *p<.05 **p<.01 ***p<.001

〈표 4〉는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에 관한 일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의 젠더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①, 결혼 가치관②,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 지속 집단은 71.6%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결혼 가치관①은 응답 분포에서는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2.8점으로 미혼 지속 집단의 2.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결혼 이행 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결혼 가치관②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는 응답을 합한 응답 비율은 미혼 지속 집단 96.1%, 결혼 이행 집단 93.1%로, 미혼 지속 집단에서 결혼 생활 종료에 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평균값으로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이 미혼 지속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는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 비율은 결혼 이행 집단에서 67.9%, 미혼 지속 집단에서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으로 보면, 결혼 이행 집단의 평균값은 2.6점, 미혼 지속 집단의 평균값은 2.4점으로 나타나, 결혼 이행 집단이 성별 역할 분업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성-일본

변수		미혼지속 (N=3,219)	결혼이행 (N=291)	χ^2/t -value
결혼 의향	없다	906(28.4)	17(7.8)	43.717 ***
	있다	2,289(71.6)	201(92.2)	
결혼 가치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64(24.8)	42(19.4)	5.768
	별로 그렇지 않다	371(12.1)	26(12.0)	
	보통이다.	1,364(44.3)	96(44.2)	
	조금 그렇다	436(14.2)	40(18.4)	
	매우 그렇다	144(4.7)	13(6.0)	
	평균	2.6	2.8	-2.237 *
결혼 가치관 ②	전혀 그렇지 않다	1,337(44.2)	84(38.9)	12.212 *
	별로 그렇지 않다	1,009(33.4)	67(31.0)	
	보통이다	560(18.5)	50(23.2)	
	조금 그렇다	62(2.1)	11(5.1)	
	매우 그렇다	55(1.8)	4(1.9)	
	평균	1.8	2.0	-2.475 *
모성 이데올로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437(14.1)	31(14.4)	2.283
	별로 그렇지 않다	512(16.5)	38(17.6)	
	보통이다	823(26.5)	57(26.4)	
	조금 그렇다	993(31.9)	73(33.8)	
	매우 그렇다	344(11.1)	17(7.9)	
	평균	3.1	3	0.731
모성 이데올로기 ②	전혀 그렇지 않다	67(2.2)	5(2.3)	0.878
	별로 그렇지 않다	321(10.7)	20(9.4)	
	보통이다	783(26.0)	54(25.2)	
	조금 그렇다	648(21.5)	51(23.8)	
	매우 그렇다	1,189(39.5)	84(39.3)	
	평균	3.9	3.9	-0.358

변수		미혼지속 (N=3,219)	결혼이행 (N=291)	χ^2 /t-value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41(29.9)	53(24.3)	14.534 **
	별로 그렇지 않다	704(22.3)	54(24.8)	
	보통이다	835(26.5)	44(20.2)	
	조금 그렇다	573(18.2)	59(27.1)	
	매우 그렇다	99(3.1)	8(3.7)	
	평균	2.4	2.6	-2.244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②	전혀 그렇지 않다	740(23.6)	51(23.5)	2.067
	별로 그렇지 않다	1,276(40.7)	93(42.9)	
	보통이다	785(25.0)	46(21.2)	
	조금 그렇다	178(5.7)	14(6.5)	
	매우 그렇다	156(5.0)	13(6.0)	
	평균	2.3	2.3	-0.116

†<.10 *p<.05 **p<.01 ***p<.001

3.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석 결과를 <표 5>, <표 6>,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4가지로 구분하였다. 모형 1에는 통제 변수와 결혼 가치관, 모형2에는 통제 변수와 모성 이데올로기, 모형3에는 통제 변수와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4는 통제 변수,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에 투입된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년도 의식을 나타낸다.

먼저 한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7> 참조). 모형1에서는 결혼 가치관 중 결혼 의향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로 측정한 결혼 가치관①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결혼 의향이 있을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할수록 즉 결혼 가치관①이 보수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로 측정한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이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과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로 측정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1배 높았다. 또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모두 투입한 모형4의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과 모성 이데올로기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4배 높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일찍 출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각각 따로 투입했을 때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의 효과는 상쇄되었다.

통제 변수의 효과를 보면, 연령, 학력, 취업 여부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 형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모형4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40대에 비해서 30대의 경우가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에 비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일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60배 높았다.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서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형태는 자가 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는 4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한국)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108	.344	1.115	.513	.342	1.670
		30대	.926	.345 *	2.525	1.294	.345 ***	3.646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 이상	.947	.177 ***	2.578	1.021	.178 ***	2.77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499	.176 **	1.646	.629	.174 ***	1.875
	주택 형태 (ref:기타)	자가	-.536	.122 ***	.585	-.528	.123 ***	.590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없다)	있다	1.008	.164 ***	2.741			
	결혼 가치관①		.213	.092 *	1.238			
	결혼 가치관②		.036	.077	1.037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21	.098	1.021
	모성 이데올로기②					.404	.093 ***	1.497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상수			-5.597	.471 ***	.004	-5.861	.450	.003
Log pseudolikelihood			-1077.307			-1103.883		
Wald chi2(df)			247.27(8)***			215.35(7)***		
N			7,875			7,883		
			모형3			모형4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462	.344	1.588	.170	.345	1.186
		30대	1.244	0.346 ***	3.472	.976	.346 **	2.655
	학력 (ref: 고졸이하)	대졸 이상	1.022	.178 ***	2.780	.954	.176 ***	2.59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646	0.175 ***	1.908	.495	.176 **	1.642
	주택 형태 (ref:기타)	자가	-.499	.122 ***	.607	-.547	.122 ***	.578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없다)	있다				.971	.164 ***	2.641
	결혼 가치관①					.122	.095	1.130
	결혼 가치관②					.030	.077	1.031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48	.088	.953
	모성 이데올로기②					.221	.094 *	1.24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188	.081 *	1.207	.120	.104	1.127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150	.089 †	1.162	.111	.097	1.118
상수			-5.618	.426	.004	-6.374	.527 ***	.002
Log pseudolikelihood			-1111.524			-1071.933		
Wald chi2(df)			213.16(7)***			261.71(12)***		
N			7,882			7,874		

† <.10 *p<.05 **p<.01 ***p<.001

다음으로 일본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7〉 참조). 모형1에서는 결혼 의향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로 측정된 결혼 가치관②가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에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3.56배 높았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4배 높은 결과였다. 모형2에서는 결혼 이행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확인되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남성의 일은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로 측정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①이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역할 분업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4에서는 모형1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던 결혼 의향, 결혼 가치관②의 효과가 나타났고, 모형2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엄마가 밖에서 일하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는 힘든 경험을 하기 쉽다’로 측정된 모성 이데올로기①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①에 찬성할수록 즉 엄마 역할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의 영향을 보면, 모든 모형에서 연령과 주택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정의 영향, 주택 형태는 부의 영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은 40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각각 10.74배, 12.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형태는 자가일 경우 결혼으로 이행할 해저드비가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및 취업 여부는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일본)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2.034	.589 **	7.643	2.763	.718 ***	15.845
		30대	2.114	.591 ***	8.285	2.771	.720 ***	15.975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 학교	.142	.167	1.153	-.017	.174	.983
		대졸 이상	.156	.177	1.168	.135	.176	1.145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334	.303	1.397	.409	.304	1.506
주택 형태 (ref: 기타)	자가	-.330	.147 *	.719	-.279	.148 †	.757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 없다)	있다	1.268	.262 ***	3.555			

			모형1			모형2			
			Coef	SE	exp(b)	Coef	SE	exp(b)	
			결혼 가치관①	.067	.062	1.069			
			결혼 가치관②	.134	.074 †	1.144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042	.054	.959	
	모성 이데올로기②					.011	.062	1.011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상수			-6.280	.758 ***		-5.438	.877 ***	.004	
Log pseudolikelihood			-728.659			-742.424			
Wald chi2(df)			49.96(9)***			19.55(8)*			
N			3,114			3,136			
			모형3			모형4			
			Coef	SE	exp(b)	Coef	SE	exp(b)	
통제 변수	연령 (ref: 40대)	20대	2.427	.587 ***	11.322	2.374	.716 **	10.740	
		30대	2.372	.589 ***	10.719	2.502	.718 ***	12.214	
	학력 (ref: 고졸이하)	전문 학교	.099	.166	1.104	.012	.175	1.012	
		대졸 이상	.114	.176	1.120	.174	.179	1.190	
	취업 여부 (ref: 미취업)	취업	.456	0.304	1.578	.273	.305	1.314	
	주택 형태 (ref: 기타)	자가	-.336	.146 *	.714	-.306	.151 *	.736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ref: 없다)	있다				1.255	.275 ***	3.507	
	결혼 가치관①					.074	.065	1.077	
	결혼 가치관②					.150	.077 *	1.162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117	.060 †	.890	
	모성 이데올로기②					-.015	.066	.986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119	.057 *	1.127	.102	.064	1.108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003	.066	.997	-.063	.071	.939	
상수			-5.504	.724 ***	.004	-6.299	.941 ***	.002	
Log pseudolikelihood			-767.017			-693.499			
Wald chi2(df)			29.60(8)***			51.02(13)***			
N			3,286			2,946			

† <.10 *p<.05 **p<.01 ***p<.001

〈표 7〉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한일 비교

		한국				일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결혼 가치관	결혼 의향	+	.	.	+	+	.	.	+
	결혼 가치관①	+
	결혼 가치관②	+	.	.	+
모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①	-
	모성 이데올로기②	.	+	.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①	.	.	+	.	.	.	+	.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②	.	.	+

(+) (-) 기호는 $p < .10$,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및 젠더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젠더 의식에는 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 청년 세대의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양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결혼 상태 변화에 따른 젠더 의식의 특징을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결혼 이행 집단이 미혼시에 결혼 의향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또한, 미혼 지속 집단과 결혼 이행 집단 모두 일본 여성 청년 집단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과 일본에서 젠더 의식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징을 비교하면, 결혼 가치관 중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요인은 결혼 의향이였으며, 젠더 의식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모든 변수 중에서 결혼 의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コルムシ, 2019; 小林, 2006; 橋本, 2009)이라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립(2019)의 연구에서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인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8.8%였던 것에 반해, 자신의 직접적인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 의

사가 있다’는 응답이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및 인구문제 연구소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18~34세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언젠가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응답은 미혼 남성에서 85.7%, 미혼 여성에서 89.3%로 매우 높았고(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었기에 결혼 의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결혼 의향을 가지게 되는 필수조건이거나 전제조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요소라고 보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성별 역할 분업을 나타내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결혼 가치관의 영향은 한국에서는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의식 중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만을 살펴볼 때, 일본은 일하는 엄마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결혼 이행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중 여성의 일과 관련된 인식은 일본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보수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일본은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지며, 또한,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져서 한국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젠더 의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성별 역할 분업 의식에 찬성할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별 역할 분업 의식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의식인데 실제 결혼 후의 생활을 감안하여 결혼 직전에 성별 분업 의식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화했을 가

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희경과 신형진(2020)의 연구에서 결혼 이행 여부에 따른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비혼 유지 집단과 초혼 이행 집단의 가치관은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혼 이행 집단은 혼인 직전의 가치관이 처음보다 전통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둘째, 한국은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효과 중에서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직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가사책임에 관한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장애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30대 전반의 미혼 여성이 결혼 이행의 장애로 꼽고 있는 것이 결혼 후 자신의 가사책임이라는 彭潤希 등(1999)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21)에 따르면 2020년 3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51.3%, 40대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일본의 경우, 국립사회보장 및 인구문제 연구소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전국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1990년대 조사에서 18~34세의 미혼 여성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코스로 전업주부 코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한 이후,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5). 다만,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해도 결혼 후 실제로 일과 가정 양립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혼 의향이 결혼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책임이 집중되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업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맞벌이의 어려움을 남배우자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확충과 결혼 이후에도 여성이 자신의 역량 발휘와 커리어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한국에서는 성별 역할 분업 의식에 찬성할수록, 또한, 취업하고 있을수록 결혼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취업 여부는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이행한 그룹의 결혼 전후의 취업 상태를 추적해 본다면 성별 분업 의식, 결혼 후 취업 지속 여부, 결혼 행동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하는가'를 파악할 때 결혼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현실과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한 이상 사이에서 가치관의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젠더 의식 중 모성 이데올로기의 효과를 볼 때, 한국은 결혼하면 자녀

를 빨리 갖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가질 경우 결혼 이행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가치관의 효과와 모성이데올로기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당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즉 한국의 여성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생애단계의 과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선호가 결혼 이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자녀 결정을 이기적 선택으로 치부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여성 청년 세대 집단은 편중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여성 청년세대에게 출산의 책임이 결혼 행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무겁게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은 취학 전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모성 이데올로기 의식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전통적일수록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결혼으로 이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한국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흥미로운 점이다. 일본의 자녀 양육에 관한 관심에 대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에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엄마가 직접 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 성장 후 악영향이 있다는 '3세 아동 신화(三歲兒神話)'가 대중에 퍼지기 시작하였다(上野 등, 2010). '3세 아동 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찬반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도 자세하게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동일한 모듈로 수행된 조사가 아니므로 젠더 의식의 측정 도구 및 측정 방법이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두 조사의 측정 도구의 원문항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젠더 의식(결혼 가치관, 모성 이데올로기, 남성 생계부양자 의식)이 여성 청년 세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젠더 의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의식을 포

함하고 이러한 의식과 결혼 행동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젠더 의식이 다소 상이하다는 현재의 논의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여성 청년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cknowledgements

The data for this secondary analysis, “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 of the Youth (JLPS-Y) Wave 1-10, 2007-2016, 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 of the Middle-aged (JLPS-M), Wave 1-10, 2007-2016(Japanese Life Course Panel Surveys (JLPS) project,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was provided by the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Center for Social Research and Data Archive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참고문헌

- 김은정(2018). “미혼 여성이 지각한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4-194.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57-70.
- 김주현·이수진(2019). “한국과 일본 비혼 현상의 성별 차이”. 한국인구학. 제42권 제1호. 115-138.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 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제28권 제2호. 33-62.
- 변수정(2018).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보건복지포럼. 제268권. 19-34.
- 오영은·추주희(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제11권 제1호. 1217-1231.
- 오지혜(2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동패널 1998-2016년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4호. 50-81.
- 우해봉(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구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제32권 제1호. 25-50.
- 유계숙·정선영(2018). “청년초기 미혼 대학생의 기대자녀수를 설명하는 요인의 탐구 = 태도, 규범, 행동 통제감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6권 제3호. 79-89.
-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75-101.
- 이상림(2019). “미혼 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제268권. 6-18.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95-140.
- 이순미(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지역과 세계. 제40권 제3호. 1-30.
- 임훈민·김중백(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6권 제3호. 45-67.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3호. 1-23.

- 정희경·신형진(2020).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초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32권 제1호. 153-155.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31-51.
- 채민진(2019).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9-55.
- 탁현우(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223-244.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2. 8.31 인출
-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7권 제3호. 25-59.
- Barber, J. S., & Axinn, W. G. (1998). Gender role attitudes and marriage among young women. *The Sociological Quarterly*, 39(1), 11-31.
- Bellani, D., Esping-Andersen, G., & Nedoluzhko, N. (2017). Never partnered: A multilevel analysis of lifelong singlehood. *Demographic Research*, 37, 53-100.
- Burgess, S., Propper, C., & Aassve, A. (2003). The Role of Income in Marriage and Divorce Transitions among Young America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3), 455-475.
- Cunningham, M., Beutel, A. M., Barber, J. S., & Thornton, A. (2005).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about gender and social contexts during young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34(4), 862-892.
- Espenshade, T.(1985). Marriage Trends in America: Estimates, Implications, and Underlying Caus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2), 193-245.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Goldscheider, F. & Waite, L. (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2(1), 91-109.

-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 Kolpashnikova, K., Zhou, M., & Kan, M. Y. (2020). Country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gender-role attitudes and marital centrality: Evidence from 24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61(5), 291-309.
- Pessin, L. (2018). Changing gender norms and marriage dynamic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25-41.
- 阿部正浩・北村行伸(1999).「結婚の意思決定モデルとその実証」阿藤誠編『家族政策および労働政策が 出生率および人口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総合報告書(平成8年度~平成10年度)：厚生科学研究 費補助金政策科学推進研究事業』, 395-417.
- 上野恵子・穴田和子・浅生慶子・内藤圭・竹中真輝(2010). “文献の動向から見た育児不安の時代的変遷”. 西南女学院大学紀要. 14. 185-196.
- 厚生労働省(2013).「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の報告書,
<https://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2605000-Seisakutoukatsukan-Seisakuhyoukakanshitsu/0000022200.pdf> 에서 2022. 8.31 인출.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5). 現代日本の結婚と出産 - 第15回出生基本動向調査報告書一,
https://www.ipss.go.jp/ps-doukou/j/doukou15/NFS15_reportALL.pdf 에서 2022. 8.31 인출.
- コルムシオリガ(2019). “ジェンダー意識は結婚への移行に影響を与えるのか:パネルデータを用いた男女比較分析”. *ジェンダー研究*. 22. 169-183.
- ソニー生命保険株式会社(2019). 女性の活躍に関する意識調査 2019,
https://www.sonylife.co.jp/company/news/2019/files/190424_newsletter.pdf에서 2022. 8.31 인출.
- 内閣府(2012).平成24年度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https://survey.gov-online.go.jp/h24/h24-danjo/2-2.html> 에서 2022. 8.31 인출.
- _____ (2016). 平成28年度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https://survey.gov-online.go.jp/r01/r01-danjo/zh/z13.html> 에서 2022.

8.31 인출.

_____(2019). 令和元年度男女共同参画社会に関する世論調査報告書,
<https://survey.gov-online.go.jp/h28/h28-danjo/2-2.html> 에서 2022.

8.31 인출.

_____(2021). 男女共同参画白書令和2年版,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2/zentai/html/zuhyo/zuhyo01-02-01.html 에서 2022. 8.31 인출.

永瀬圭(2018). 結婚に関わる意識と女性の社会経済的地位—計量分析を通して—.
京都大学博士論文.

永瀬伸子(2002). “若年層の雇用の非正規化と結婚行動(特集:少子化に関する家族・労働
政策の影響と少子化の見通しに関する研究)”. 人口問題研究. 58(2). 22-35.

何芳(2018). “女性の稼働能力は結婚を妨げるのか?”. 生活経済学研究. 47. 129-146.

加藤(2004). 「配偶者選択と結婚」渡辺秀樹・稲葉昭英・嶋崎尚子編『現代家族の構造
と変容—全国家族調査 [NFR98] による計量分析』東京大学出版会, 41-58.

橋本摂子(2009). “未婚者層における結婚意識の変動と社会階層的要因:パネル・ロジット
モデルによるアスピレーション分析”.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パネル調査
プロジェクト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 No. 29.

佐々木尚之(2012). “不確実な時代の結婚[GSSライフコース調査による潜在的稼働
力の影響の検証]”. 家族社会学研究. 24(2). 152-164.

三好向洋(2013). “日本における労働市場と結婚選択”. 日本労働研究雑誌. 638.
34-42.

山田昌弘(2015). 「なぜ若者は保守化したのか希望を奪い続ける日本社会の真実」、朝
日新書

_____(2019). 「結婚不要社会」、朝日新書

酒井・樋口(2005). “フリーターのその後—就業・所得・結婚・出産”. 日本労働研
究雑誌. 535. 29-41.

小林淑恵(2006). “結婚・就業に関する意識と家族形成: 循環モデルによる検証”. 人口
学研究. 39. 1-18.

小林盾・能智千恵子(2016). “婚活における結婚の規定要因はなにか—結婚研究の視
点から, えひめ結婚支援センターを事例とした量的分析—. 理論と方法. 31(1).
70-83.

水落正明(2006). “学卒直後の雇用状態が結婚タイミングに与える影響”. 生活経済学
研究. 22-23. 67-176.

中谷奈津子(2018). “婚男女における結婚意欲の関連要因—家族形成意識に関する福井・

- 大阪における調査から一”. 日本家政学会誌. 69(2). 105-114.
- 津谷(2009). “学歴と雇用安定性の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への影響”. 人口問題研究. 65(2). 45-63.
- 的場康子(2013) “若者の性別役割分業意識を考える”. LifeDesign REPORT, 2013. 7. 38-40.
- 藤原翔(2016). 「結婚・家族・ジェンダーに関する意識や未婚理由はその後の結婚にどう影響するか」石田浩・有田伸・藤原翔・小川和孝著『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パネル調査プロジェクト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94:パネル調査からみる非認知的スキル、仕事の負担、結婚に影響する意識、資産の不平等』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 白河桃子(2014). 「専業主婦になりたい女たち」, ポプラ新書.
- 福田節也(2007). “ジェンダーシステムと女性の結婚選択(2)-日本における「女性の経済的自立仮説」の検証”. 家計経済研究. 76. 54-62.
- 文部科学省(2019). 『学校基本調査』.
https://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1/kihon/1267995.htm. 에서 2022. 8.31 인출.
- 彭潤希・佐藤龍三郎・武藤孝司(1999). “未婚女性の結婚・出産に対する阻害要因-結婚・出産・育児・介護および就業に関する意識調査から”. 順天堂医学. 44(4). 423-433.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Consciousness and Transition to Marriage of Young Women in Korea and Japan

Lee Sujin*·Kim Ju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ender consciousness (marriage values, Motherhood ideology, and male breadwinner ideology) on the marriage transition of the younger female generation. In addition, i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the gender consciousness and marriage performance of young Japanese women. The Korean data is the 1-8th KLoWF (2007-2020), Japan's data is the Youth Panel Survey JLPS-Y, the 1-10th (2007-2016) of Tokyo National University's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nd the 1-10th (2007-2016) of the Elderly Panel Survey JLPS-M. The analysis subjects were those aged 18 to 50, selected 7,893 in Korea and 3,429 in Japa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 that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n both Korea and Japan was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that men should have a job and women should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is is the result of the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promising values before transitioning to marriage between reality and ideals about marriage. Second, the more think marriage is essential and the more you think it's better to have children when you get married,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s high in Korea. Considering the effects of marriage values and motherhood ideology at the same time, it is a result showing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remain sequentially and justifiable norms in the life course. Third, the more important the mother's role in preschool children is recognized,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in Japan, which is contrary to the results of Korea.

Keywords : Gender consciousness, Transition to Marriage, young women, Korea, Japan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